

2025 설날가정예배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일 년을 감사하고 새해의 복을 간구합니다.

개회 / 인도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해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

기도 /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복독 / 말은이, 누가복음 1장 18~22절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1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설교 / 말은이, '말을 못하는 사가랴'

문명사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근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식의 진보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먹고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였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이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소리칩니다. 내가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나를 떠밀지 말라고,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게 좀 내버려두라고 말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댈 수 없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용돈 주고, 안 믿으면 안 준다는 것으로는 그들을 행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는 자녀를 보면 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자녀 스스로 확인하고 인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대 간의 신앙 전승에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나이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가라입니다. 나이 많고, 낙이 없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자녀의 복도 못 받고’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자녀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언할 실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요?’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에게 큰소리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멋있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사가라처럼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디 세례자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입을 열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그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고대합니다. 조용히 성경책을 열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서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대 차이 같은 것으로 싸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서로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 설교자

찬송 / 다같이,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3. 우리들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후렴)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